강사프로필

❖ **성 명 : 김 영 운** 박사
(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

〈주요 학력 및 경력〉

- 국립국악고(거문고전공)
- 서울대 음대 국악과(이론전공)
- 한양대 대학원 국악학과(음악석사, 이론전공)
- 성균관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문학박사, 고전문학전공)

- 충남 서령고 교사(음악)
- KBS 프로듀서
- 강릉대 음악과 교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정보센터 소장, 대학원장) 역임
- (현재) 한양대 국악과 교수

- 한국민요학회장
- 한국국악학회장
- 한국음악협회 감사
-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이북5도 문화재위원
- 제57, 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장 역임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위원
- (현재)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준비위원장

연락처 : 전화(055)240-6090/팩스(055)240-6091

초 청 장

사단법인 합포문화동인회

초대합니다

밤잠을 설치게 했던 폭염도 마침내 지나갔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여름이었기에,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 덕분에 긴 열대야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소슬한 가을 저녁 우리 傳統音樂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 안내는 **김영운 교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김 교수님은 국악이론을 전공하시고 대학강단에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국악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작업을 평생해 오셨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예술을 알면 그 예술을 만든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인 國樂에 대한 지식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부여 사람들은 길을 가면서도 노래를 했고 고구려 사람들은 일이 끝나면 저녁 때 모여 노래를 하였다.'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기록을 들추지 않더라도, 매일 저녁 200만명 이상의 인원이 노래방을 찾는다는 신문기사에서도, '싸이' '방탄소년단'의 한류 열풍현상에서도,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등의 수십년 장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의 음악사랑은 쉽게 확인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조상들이 즐겼던 전통음악인 國樂이 이제 외국인을 위한 행사 전시용으로만 박제화되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과연 그런지 이번 강좌에서 묻고 답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018년 09월 일

(사) 합포문화동인회
이사장 강 재 현 배상

제488회 합포문화강좌

••• 주 제 •••

한국 전통음악의 이해

••• 강 사 •••

김 영 운 박사
(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

▮일 시 : 2018년 09월 20일(목) 오후 7시30분
▮장 소 :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

(참조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동행하실 분이 계시면 함께 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